고유가 비상대책 새로 수립한다!

산자부, 에너지 소비절약 한층 강화 … 남동발전 매각은 진행

정부가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고유가 비상대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남동발전 매각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발전소 매각과 배전분할은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3년 1월17일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가 넘으면 수급상황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짜놓은 고유가 비상대책을 재검토해 다음주에 더욱 치밀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소비절약 시책이 한층 강화될 것을 암시했다.

현행 대책은 30달러 이상 일시급등하면 1단계로 소비절약을 강화하고, 35달러가 넘고 수급차질이 예상되면 2단계로 ▷비축유 방출 ▷절전고시 시행 ▷관세·특소세인하 ▷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심각한 수급차질이 생기면 3단계로 ▷유가완충준비금을 활용한 최고가격 고시제 ▷수급조정명령 발동을 검토토록 돼 있다.

한편, 신국환 장관은 중동 3개국 방문결과와 관련해 중동 산유국이 동북아 지역에 원유를 팔 때 가격을 배럴당 1-2달러씩 높게 받는 아시아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방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시행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남동발전 매각은 일정대로 진행키로 대통령인수위원회와 합의했고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발전소 매각과 배전분할을 포함한 추후 절차는 부작용 없는 민영화를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0>